

피겨는 나의 꿈



여러분은 언제
봄이 왔다는 걸 느끼시나요?

돌아나는 잎
피어나는 꽃
흐르는 물줄기
부드러워진 바람
따스한 햇볕

3월은 우리에게
세상 이곳저곳에
봄이 왔다고 알려주지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은
바로 아이들 웃음소리 속에 있다는 걸요.



CONTENTS

Vol.74 2023년 3월호

발행일

2023년 3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278-1784

편집인

홍보담당관 이종섭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전영부·주무관 이유민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주)큰그림

경남교육, 미래를 만나다

04 특집 기획

이 달의 경남교육 주요 정책
교학점제

08 요즘 아이, 별별 꿈

피겨는 나의 꿈, 차도이 선수

12 선생님 이 더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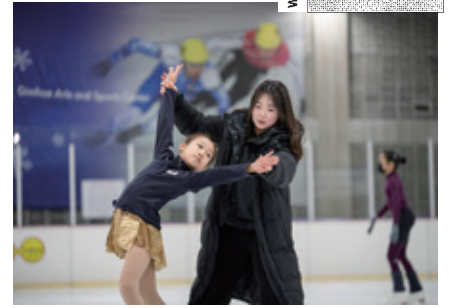
창원 신월고 신영옥 수석 선생님

16 학교 변신은 무죄

우리가 꿈꾸던 학교,
밀양 밀주초등학교

20 열정을 만나는 시간

김해문화콘텐츠기업
<피플앤스토리> 대표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24 방구석 전시관

‘스테인드글라스의 빛과 색,
균형과 조화의 미학’

26 경남교육캘린더

28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 문화도시 김해

32 즐겁지 아니한家

9남매 다둥이 가족 밴드

36 국어바르게 쓰기

38 학교폭력 예방 웹툰

경남교육, 정보를 만나다

40 진로진학 나침판

42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44 경남교육뉴스

46 의정소식

48 도정소식

50 독자기고

51 독자퀴즈



특집 기획

고교학점제

학생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학생이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함께 만드는
빛깔 있는 미래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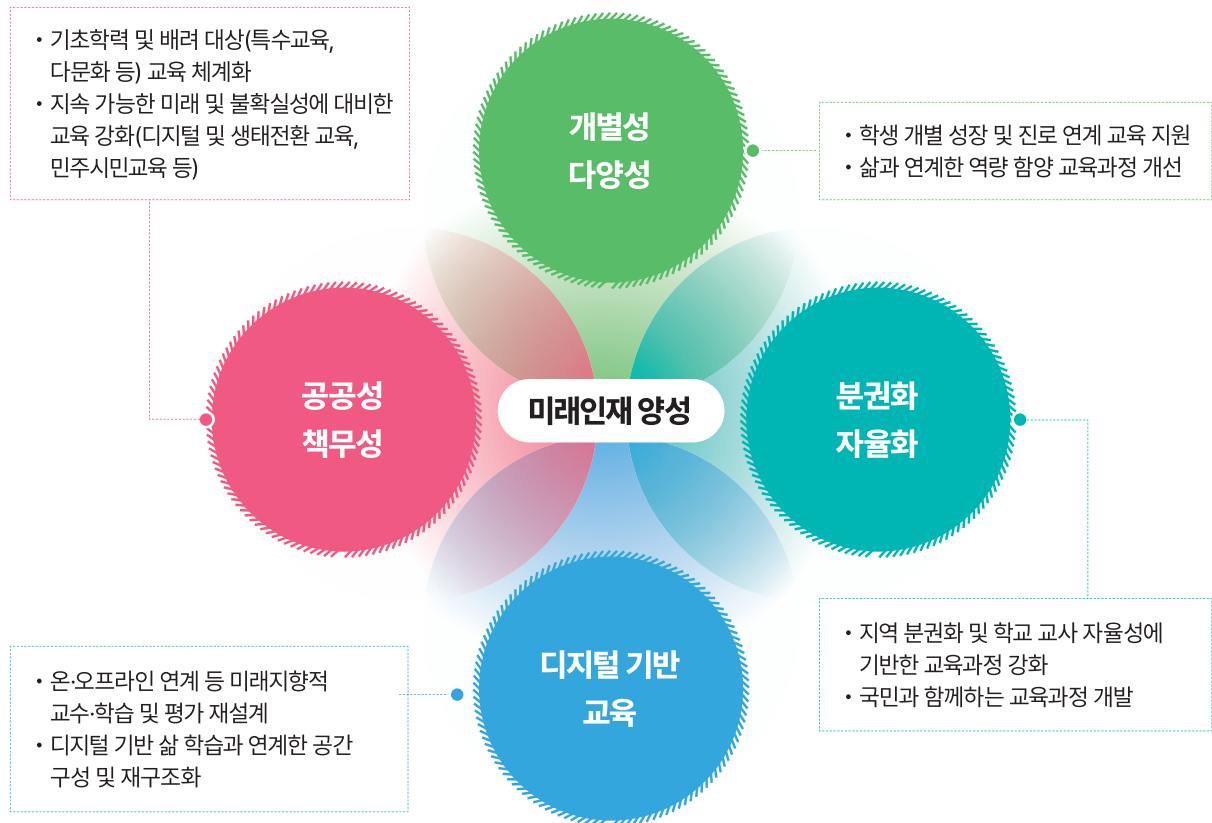


도입일정

	2022	2023~2024	2025
적용사항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일반고 학점제 부분도입(단계적 이행)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총 이수학점	204단위 1단위 17회	192학점 1학점 17회	192학점 1학점 16회
교과비중	180단위	174학점	174학점
창의적체험활동 비중	24단위	18학점	18학점
미이수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과목이수기준 •과목 출석률 2/3 이상+학업성취율 40% 미만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적용과목	공통과목 국·영·수	모든 과목
	기준	최소성취수준 40%	최소성취수준 40%
	학기중	미도달 예방지도	미이수 예방지도
	학기말	미도달 학생 보충지도	미이수 학생 보충이수 •보충이수 참여시 성취도 E부여(이수처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 01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합니다.
- 02 지역 분권 및 학교 교사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 03 특수교육, 다문화 학생 등 기초학력 및 배려 대상의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하고 디지털 및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04 온·오프라인 연계 등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를 재설계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삶과 학습을 연계한 공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업 설계, 수강 신청, 평가 및 학점 취득 등의 단계를 거쳐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학교는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학습 계획에 따라 수강 희망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업 후 평가를 통해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학점을 취득하게 되며, 일정 정도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보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이수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게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나요?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됩니다.

☞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 등은 공통 과목으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개설되지 못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온·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 평가 제도에도 변화가 있나요?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이 아닌 성취도(A, B, C)와 성취도별 분포비율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 고1부터는 모든 선택과목이 등급 없이 성취도(A, B, C, D, E, I)로 산출됩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1학년의 공통과목은 9등급제가 병기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학교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개인별 시간표

자신의 희망 진로와 적성을 토대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강 신청을 통해 학생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졸업 요건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미만)을 종합해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하게 됩니다.

수업 다양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과목을 듣고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도 수업에 참여합니다.

내신 성적

공통과목(1학년)을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주로 2~3학년)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어, 학생의 성취수준 도달 여부를 평가합니다.

학교 공간

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하게 되고 학교 공간은 가변형 교실, 온라인 학습실, 학생 생활 거점 공간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에게도 이수, 미이수 제도가 적용되나요?

2025학년도 이전 고등학교 입학생은 미이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학교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 프로그램 또는 보충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를 꿈꾸는

차도이 선수

김해 구지초등학교 6학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김연아 선수가
우리에게 주었던 감동을 기억할 것이다.
피겨스케이팅 불모지라 여겼던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선수가 나타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꿈꾸는
많은 아이들의 희망과 꿈이 되었다.

경남에서 최초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차도이 선수도 마찬가지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나아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열세 살의 차도이 선수.
오늘도 뜨거운 마음을 품고
차가운 빙상장을 누비는
차도이 선수의 꿈을 만나보자.



01 김지원 헤드코치와 훈련 중인 모습

취미로 시작해

꿈이 된 피겨스케이팅

올해 열세 살이 된 차도이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타보았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이 있어 접근이 쉬웠고, 조금 엉뚱한 이유였지만 스케이트를 한번 타보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였다.

“제가 코끼리 코를 하고 아무리 많이 돌아도 어지러움을 잘 안 느끼거든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께서 ‘스케이트를 타면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흥미가 생겼어요.”

처음 발을 내디터본 빙상장에서 초보용 피겨화를 신고 미끄러지듯 나아갔을 때 차도이 선수는 단번에 흥미를 느꼈다. 넘어질까 봐 겁이 날 법도 한데 무서움은 느껴지지 않고 재미있기만 했다.

“빙판을 달리는데 얼굴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점프를 할 때도 재미있었고요.”

첫 시작은 취미였지만 여러 번 타다 보니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마침 경남에서 유소년 피겨 선수를 육성하는 <팀 주얼스>가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차도이 선수는 김지원 헤드코치의 눈에 띄어 아홉 살 때 선수반 소속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6번, 하루 평균 7시간의 훈련을 성실하게 소화하는 차도이 선수는 김지원 코치도 인정할 만큼 열정과 끈기를 지녔다.

김지원 코치 “도이 선수가 승부욕이 강해요.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훈련이 체력훈련인데, 도이 선수는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언니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훈련에 임해요. 도이 선수가 가진 여러 장점 중 하나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차도이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는 종목은 김연아 선수와 같은 여자 싱글이다. 첫 대회에 출전했을 때 차도이 선수의 나이는 아홉 살. 선수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성적은 꼴찌였다. 처음이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속상한 마음은 있었을 터.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보니 차도이 선수는 대답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졌어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다는 의미가 많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차례차례 기술을 익히는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차도이 선수의 마음도 이와 비슷했다.

“훈련할 때나 경기 중에 기술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일어나서 다음 거를 잘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른인 우리도 알고 있지 않은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때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러한 태도와 노력 덕분에 차도이 선수는 2021년에 열린 ‘제23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꿈나무 대회’ 여자 초등부 고학년 1급 그룹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처음 출전한 전국대회이자 경남에서 출전한 유일한 선수로 거둔 값진 성적이었다.

김지원 코치 “김해시민스포츠클럽은 부산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로 빙상장을 갖추고 있는데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지상훈련센터(오프 아이스) 훈련장도 마련돼 있어요. 덕분에 경남 지역 선수들이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효과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2016년 유소년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팀 쥬얼스>가 창단하면서 경남에서도 도이와 같은 선수가 성장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부산 선수들도 여기로 훈련을 올 정도로 ‘피겨’하면 김해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해 또 한 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안 오픈 피겨스케이팅 트로피 대회에서 차도이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이었다.

“대회를 앞두고 부상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요. 좋은 성적을 받게 돼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잘해보고 싶어요.”





02-03 제23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꿈나무 대회 출전 및 수상 모습

꾸준히 노력하는 국가대표가 목표

피겨스케이팅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벽한 기술을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듣고 표현해내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스케이팅을 타기 전에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 치어리더를 꿈꿨다는 차도이 선수는 경기 중에도 심판 앞에서 자신의 끼를 보여줄 때가 제일 재미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차도이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저는 더블 악셀과 트리플 살코를 가장 좋아해요. 더블 악셀은 공중에서 두 바퀴 반을 도는 것이고, 트리플 살코는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고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더블 악셀에 성공했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요즘은 ‘트리플 러츠’ 기술을 깔끔하게 해내기 위해 연습하고 있다는 차도이 선수. 자신에게 피겨스케이팅은 가장 좋아하는 일이자 꿈이라고 말하는 차도이 선수에게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국제 대회에 출전해서 메달도 따보고 싶고요. 나중에는 코치가 되어서 지금 저 같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어요.”

차도이 선수는 2월 중순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리는 <전국 동계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국가대표선발전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인데다 승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욱 긴장이 된다고. 무사히 경기를 마치는 것이 이번 목표라고 말하는 차도이 선수를 보며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라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차도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속상한 마음을 털어내고 다시 피겨화의 끈을 조일 것이다. 얼음판 위에서 마치 유영하듯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몸짓을 보여줄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를 깜짝 놀래줄 것이다.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고 싶다면?

김해시민스포츠센터 <팀 주얼스>

인스타그램 @figure_jewels_gh



창원 신월고등학교
신영옥 수석 선생님(역사 전공)

신월고등학교 학생들이 '3.15의거'를 기억하는 방법



신영옥

입춘이 지나고 점차 바람이 순해지더니 어느새 3월이 왔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도, 얼었던 땅이 녹고 새 잎이 돌아나는 자연에도 설렘이 가득한 계절이다. 이러한 설렘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63년 전 봄이 있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3.15의거’. 우리가 이 봄을 설렘으로 맞을 수 있는 이유는 63년 전 봄, 민주화 시위에 나선 청년들의 외침 덕분임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있다. 34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창원 신월고등학교 신영옥 수석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3.15의거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작을 이끈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등장할 만큼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4.19혁명이 있기 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최초의 시위가 마산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3.15의거’는 한 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34년째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신영옥 수석 선생님은 그 점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3.15의거’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수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저는 ‘3.15의거’를 지칭할 때도 꼭 ‘3.15마산의거’라고 부르거든요. 아이들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4.19혁명을 촉발한 최초의 민주주의 시위가 일어났다는 점, 김주열 열사뿐 아니라 너희들 또래거나 그보다 더 어린 많은 평범한 학생들이 시위의 주축이 되었다는 점,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신영옥 수석 선생님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정하는 활동으로

시작한다. ‘3.15마산의거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다’는 수업 목표 아래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수업과 관련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본다. 학생들이 적은 내용은 교실에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학생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주도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흥미를 느끼기도 쉽고요.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도 무엇을 가장 궁금해 하고,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쉽죠.”

학습 목표를 공유한 학생들은 교과서를 비롯해 영상 및 PPT 자료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3.15의거’에 대해 학습한다. 신영옥 수석 선생님의 수업이 특별한 이유는 이 다음 과정에 있다.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3.15의거’ 답사 코스를 재구성해본다.

“마산에는 ‘3.15의거’ 유적지가 곳곳에 남아있어요.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이나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당시 시민들이 가장 격렬하게 항의했던 남성과 출소 자리도 있고요. 동료 교사와 함께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 촬영과 자료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 답사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유해주었어요.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과 사전 답사 자료를 참고해서 모둠별로 자신들만의 ‘3.15의거’ 답사 코스를 재구성해 보게 되죠.”

답사 코스를 재구성하며 학생들이 꼭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답사 코스의 주제를 정해보는 것.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제에 맞는 답사 장소와 경로를 논의하는 동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3.15의거’의 의미와 세부적인 사건들을 되짚어보게 된다. 누군가가 알려준 것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공부가 된다.

“주제를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느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예요. ‘역사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그날의 봄날을 기억하며’, ‘1960년 뜨거웠던 마산의 봄’... 다들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역사 수업

그리고 학생들은 모둠별로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자료를 오려 붙여 답사 코스를 완성한다. 결과물은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이후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복도에 전시한다.

“평소 수업에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하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답사 코스를 짜는 일이 재미있었는지 전지를 펼쳐 둔 책상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감격해서 사진도 찍어두었어요. 또 결과물을 전시해 두면 학생들이 뿌듯해 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만든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신영옥 수석 선생님의 역사 수업이 더 특별한 이유는,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문제를 연결 지어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역사를 사고하게 만드는 데 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철학 덕분이다.

“예를 들어 3.15의거와 4.19혁명 관련 활동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하게 해요. 그럼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와요. 입시, 부정부패, 다문화 관련 문제 등.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역사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 배우길 바라죠.”

학생이 적은 수업 소감

“이번 활동을 통해 직접 역사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뭉클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볼게 됐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고민해봐야 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 발생했던 의거여서 더욱 깊게 와닿았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소중한 역사를 잊지 않고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선생님이 더 배웁니다

신영옥 수석 선생님은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현장지원단 소속 교사로 경남도내 초·중·고 역사교사들과 함께 3.15계기교육자료를 만들었다. 학습지도안만 있으면 교사가 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참고자료와 활동지를 구성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관련 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경남도 내 각 학교로 3.15 계기교육자료가 배포될 겁니다. 동료 교사들과 교생해서 만든 만큼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에게도 ‘3.15의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01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함께 고민하기
- 02 3.15의거 답사 코스 결과물
- 03 3.15의거 답사 코스 주제 정하기
- 04 신영옥 수석 선생님의 교과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그의 교과서를 펼쳐보았다. 수험생의 교과서라는 생각이 들 만큼 거의 모든 페이지에 빼곡하게 필기가 되어있었다. ‘선생님이 더 배운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매일 고민한다는 신영옥 수석 선생님. 그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로 기억되길 바라고 있을까.

“자신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으로 기억해준다면 좋겠어요. 지금껏 그래왔듯 매일 수업을 고민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교사 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신영옥 수석 선생님은 말했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수업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신영옥 수석 선생님의 다음 수업이, 그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내일의 교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공간혁신으로

우리가 꿈꾸던 학교가 되다

밀양 밀주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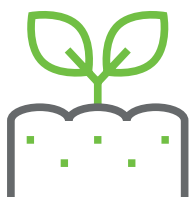
겨울방학이 한창이던 2월 초.

밀주초등학교에 들어서자 조용해야 할 운동장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무엇을 하고 놀길래 이렇게 신이 날까 싶어
살펴보니 그제야 남다른 운동장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낮은 산'이라고 부르는 언덕과
물줄기가 흐르는 개울, 안전한 규사 모래가 깔린 놀이터,
생태 통로로 불리는 동굴이 있는 운동장이러니.

까르르 웃으며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싱그러운 봄기운이 느껴졌다.
구도심에 있어 급격히 학생 수가
줄어들던 학교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바뀌게 된 이유.

밀양 밀주초등학교 공간 혁신의 주인공
박순걸 교감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01 아이들의 놀이터 생태동굴에서
02 운동장에 있는 개울. 봄이 오면 물고기를 기를 예정이다

아이들에게 학교를 돌려주다

밀양시 구도심(가곡동)에 위치한 밀주초등학교는 1946년에 개교해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학교다. 10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400~500명 규모였지만, 인구 감소와 함께 2020년엔 120명 규모로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밀주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순걸 교감은 '이대로 가면 학교가 문을 닫을 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학교를 살려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2021년 9월, 밀주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박순걸 교감 “부임 후 처음 한 일이 보호자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학교가 어떻게 바뀌길 원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죠.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아이가 밀주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였어요. 그만큼 학교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거죠.”

박순걸 교감은 생각했다. 보호자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이 매일 오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선 어떤 것부터 바꾸어야 할까? 고민 끝에 그가 찾아낸 해답이 바로 ‘공간 혁신’이었다. 학교 공간은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밀주초등학교 중앙현관에 있는 ‘꿈자람터’다.

‘꿈자람터’는 270㎡ 크기 1만 6500권의 도서가 있는 북카페·도서관·놀이터·중앙현관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교장실과 교무실·행정실의 규모를 줄이고, 통로로만 사용했던 중앙현관을 아이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학교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저마다 편한 자세로 책을 읽는다. ‘꿈자람터’가 생긴 이후 아이들의 독서량이 세 배 이상 늘었다. 책을 읽고 싶지 않을 땐 한곳에 마련된 놀이공간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놀면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길 바랐다는 박순걸 교감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공간이다.



박순걸 교감 “학교에서 아이들은 좁은 교실에서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는 데 비해 어른들이 점유하는 공간이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장운익 교장 선생님은 물론 교직원들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죠.”

박순걸 교감은 ‘꿈자람터’가 학생, 교사, 보호자와 함께 만든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공간을 구체화했고, ‘꿈자람터’라는 이름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박순걸 교감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마음은 모두 같다는 것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운동장

‘꿈자람터’와 이어진 공간인 1학년 교실에 들어서면 이번에는 새로운 교실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교실 뒤편에는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교실에서 교실 밖 텍과 운동장이 연결되어 있어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곧바로 운동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다.

박순걸 교감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친구들과 공부하고 노느라 휴대전화 볼 틈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학교가 제일 재미있는 놀이 공간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잘 노는 아이들이 사교성과 협동심이 좋고, 문제 해결능력도 뛰어나거든요. 미래 인재는 이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놀아야 잘 크다’는 박순걸 교감의 믿음은 운동장의 변화도 이끌어냈다. 생태운동장으로도 불리는 밀주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동그란 언덕과 생태 통로(동굴),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개울, 규사 모래가 깔린 놀이터, 산책로와 작은 숲이 조성되어 있다. 방학 중임에도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생기가 넘쳐났다.

놀아야 잘 크다

박순걸 교감 “그동안 운동장은 운동을 잘하는 남학생들 위주로 사용되어 왔어요. 특히 저학년 여학생들은 운동장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놀 수 있는 운동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하나의 생태학습장처럼 만들어보기로 한 거죠. 봄이 오면 개울에는 물고기가 자라고, 생태 동굴과 언덕은 초록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더 좋아하겠죠.”

아직은 개울에 살얼음이 끼는 겨울. 운동장에 찾아온 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듯했다. 추운 줄도 모르고 생태 동굴 주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의 좋은 점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서로 앞다투어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이정민(밀주초 4학년) “우리 학교는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요. 운동장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놀이터도 생겨서 너무 좋아요. 다른 학교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주연·권에서(밀주초 2학년) “운동장에서 놀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을 때는 꿈자람터로 가면 돼요!”

03 꿈자람터
04 박순걸 교감



우리가 꿈꾸던 학교가 되었다

밀주초등학교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학교 공간을 보호자와 지역민들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꿈자람터’에서는 주말마다 마을 어른이 선생님이 되는 마을학교가 열리고, 운동장에 마련된 작은 숲은 캠핑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운동장 한곳에는 학부모들의 휴식·소통 공간으로 이용되는 ‘모밀’도 조성되어 있다.

박순걸 교감 “학교는 공공재라고 봐요. 교문의 문턱을 높여서 성공한 교육은 없다고 생각해요. 교사는 몇 년 후면 학교를 떠나는 존재지만,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꼭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해요. 밀주초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보호자들은 자신의 아이뿐 아니라 전교생의 이름을 거의 외우고 있어요. 이런 환경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학교의 노력 덕분에. 얼마 못 가 폐교된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밀주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 1년만에 6학급에서 11학급이 됐다. 학교 맛집으로 소문나 창원과 서울에서 전학을 오고 보호자들은 자진해서 학교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밀주초등학교를 연구협력학교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10년간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는 중단연구를 시작했다.

박순걸 교감 “앞으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나갈지,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10년 후 지금의 아이들을 인터뷰했을 때 ‘우리 학교와 마을이 이렇게 나를 키웠어요’라는 말을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박순걸 교감은 인터뷰가 끝나자 곧바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학교에서 어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자신의 모습으로 알려주는 듯했다. 것처럼 밀주초등학교도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렇게 밀주초등학교는 모두가 꿈꾸던 학교가 되었다.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 좀 쓴다는 요즘 학생들의 희망 직업은 웹툰·웹소설 작가. ‘피플앤스토리’는 이들을 육성, 발굴해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미디어 콘텐츠기업이다. 웹툰이나 웹소설 등을 영화, 드라마, 게임, 음반, 연극, 뮤지컬 등으로 만드는 것을 OSMU(원 소스 멀티 유스: One Source Multi Use)라고 한다. 하나의 콘텐츠가 가진 잠재력은 그만큼 무궁무진하다. 김남철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콘텐츠의 힘을 믿고 창업을 준비했다. 올해로 설립 9년 차, 피플앤스토리의 매출은 1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내가 그린 웹툰이 드라마가 된다고?

김남철 피플앤스토리 대표

Kim Nam Cheul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활용

피플앤스토리는 웹툰과 웹소설을 제작·유통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경남에선 유일하다. 원천 스토리를 기반으로 웹툰을 제작하고 I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를 확보해 영화, 드라마, 게임, 뮤지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2021년 12월 말에 첫선을 보인 <죽음 대신 결혼>과 <세이렌>이 있다. <죽음 대신 결혼>은 웹소설 작가 <도개비>의 소설을 웹툰화한 노블코믹스로 카카오페이지 연재 당일부터 로맨스 부문 1위를 차지한 작품이다. <세이렌>은 카카오페이지 로맨스판타지 부문 1위에 오른 작품으로 카카오페이지 프로

모션에 첫 번째로 선정돼 인기 연예인이 해당 작품을 광고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지 외에 네이버웹툰, 리디북스, 레진코믹스, 피너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피플앤스토리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피플앤스토리

한국뿐이라. 피플앤스토리는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웹툰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시장은 독점적으로 웹툰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은 1억 명 인구 중 60% 이상이 30대 이하이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2%다. 국내 웹툰의 주 독자층이 15~25세이

니 K웹툰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이다.

“전 세계 웹툰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K웹툰은 올해 수출액 4조 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류 콘텐츠는 음악, 드라마 등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게임, 웹툰, 웹소설이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화나 게임, 드라마 등에서 나온 의류, 생활용품 등 굿즈 파생 시장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특히 웹툰 IP를 영상화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2019년 6건에 불과하던 웹툰 영상물이 올해는 26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카카오의 경우 2022년 50편이 넘는 판권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사내맞선>, <재벌집 막내아들> 등의 공통점은





66

성공한 크리에이티브로
인정받으려면
많이 보고 읽고, 그리고
전문 집단과 상의하면서
작업을 해 보세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99



웹소설이나 웹툰이 드라마, 영상, 게임 등으로 제작됐다는 겁니다. 웹툰은 매년 50% 이상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블루칩 산업군입니다.”

웹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만큼 동시에 피플앤스토리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다. 현재 직원 수가 100명이 넘고 매출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도 IPO(기업의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에 제1스튜디오, 창원에 작가 관리 지사, 부산에 제2웹툰 스튜디오, 서울에 소셜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베트남에는 웹툰 플랫폼 운영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드라마 제작사 인수 합병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IP 가치사슬의 강력한 시너지를 입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건 김남철 대표의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 아닐까. 1996년 사회에 첫발을 떼면서부터 무려 30년 가까이 콘텐츠 산업에 몸담아 온 그다.

“공감과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산업군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20대 중·후반이 많은데 그 세대들과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김해에서 한국 웹툰의 메카를 꿈꾼다

피플앤스토리는 지난해 경남형 청년친화 기업에 선정됐다. 경남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판에 피플앤스토리는 전국에서 청년들이 몰려든다. 가까이 는 대구부터 멀게는 제주도, 서울까지.

“급여나 복지나 근무 환경은 다른 기업과 비슷하지만 청년들이 이 일을 재밌어 한다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는 지리적 한계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예로 1928년에 태어난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는 9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매년 6조 원의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경남도 예산의 절반 수준이죠. 똑똑한 캐릭터 IP 하나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키마우스는 1920년대, 지금처럼 그리 크지 않았던 지방 소도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들어졌습다.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플앤스토리 본사도 김해다. 서울엔 소셜사업본부, 부산엔 웹툰 스튜디오가 있다. IT, 콘텐츠 기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경남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남은 진주성, 남해 독일마을,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김해, 창녕의 가야 문화, 진해, 거제 등 지역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이야깃거리가 많은 거예요. 저희는 김해의 가야 문화를 살려 2021년에 웹툰 ‘수로의비’를 제작해 카오페이지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웹툰으로 담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면 더 재밌지 않겠어요? 지역특화형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구축지원 사업에 공모

김연승 웹툰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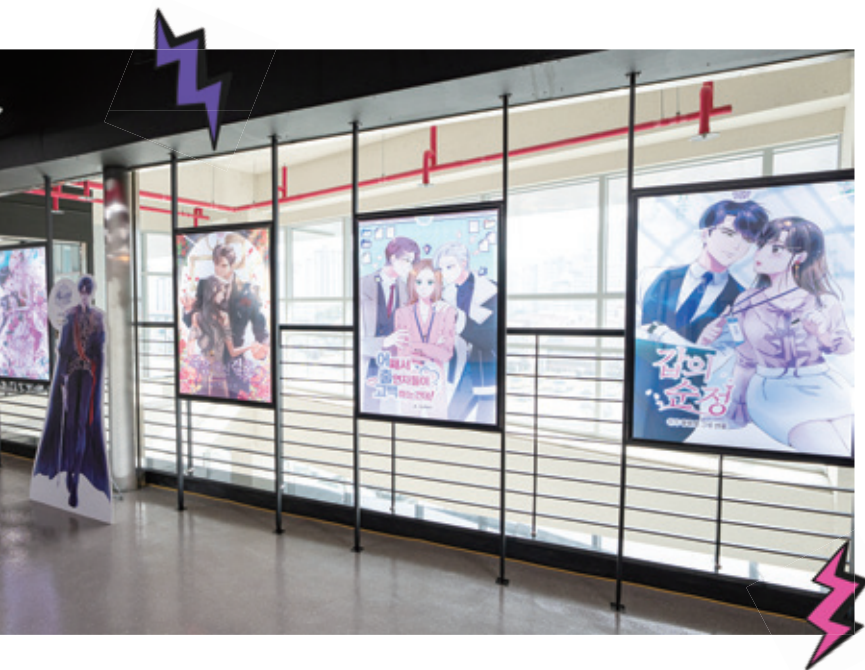
<철의 영혼 아누비스> 연재

Q1 웹툰 작가가 되려면 어디로 진학해야 하나요?

창원문성대 웹툰그래픽과 나 인제대 웹툰영상학과 같은 관련 학과로 진학해도 좋지만 시각디자인과나 다른 전공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Q2 웹툰 작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진입이 쉬운 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데뷔를 하고 차기작을 내는 작가가 전체의 15%밖에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하고 트렌드를 파악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겁니다. 볶음밥 위에 짜장을 끼얹든 계란 프라이를 얹든 볶음밥을 잘 만들어야 맛있죠.



한 것도 그래섭니다. 디즈니처럼 웹툰마음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수도권은 정책 지원과 지리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이해 관계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한계를 극복하기 쉬워요.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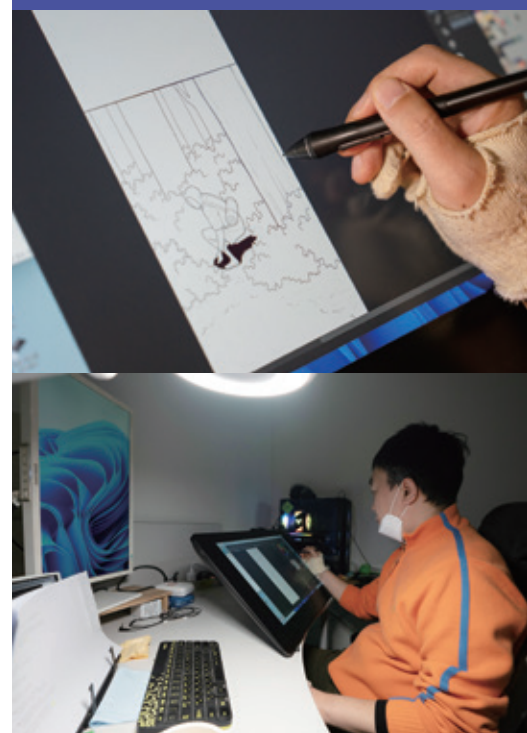
피플앤스토리는 김해 율하카페거리를 배경으로 메타버스를 구축해 웹툰과 지역을 결합한 ‘율하 툰빌(Toonvill)’을 준비 중이다. 조만간에는 오프라인 웹툰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웹툰과 가상현실, 게임 등 영상화 기업과 융합사업을 통해 경남을 K-툰(toon)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

웹툰·웹소설 작가가 되려면

문학소년에서 미디어 콘텐츠 기업인으

로 자리매김한 김남철 대표. 그가 생각한 좋은 작품은 “독자들이 찾게 되는 작품”이다.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도 독자들이 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작품은 독자들이 찾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야기가 소설화되고 웹툰으로 그려지고, 이것이 영화나 게임으로 영상화 되기까지 그렇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작품이 아닐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작해 보세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창작입니다. 독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작품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웹툰과 웹소설은 높은 학력이나 부유한 가정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성공한 크리에이티브로 인정받으려면 많이 보고 읽고, 그리고 전문 집단과 상의하면서 작업을 해 보세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올해도 반짝 빛날 너에게 주는 선물

◆ 도서관 순회전시 ◆

‘스테인드글라스의 빛과 색, 균형과 조화의 미학’전



“1년 동안 반짝반짝 빛나 보자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도 반짝 빛날 당신에게 전하는 스테인드글라스 순회전시.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동백 조명을 만들었던 지혜은 작가와 함께 1년 동안 체험형 전시를 개최한다.

문화소외지역에 위치한 경남교육가족에게 특히 더 반가울 소식!

올 한 해 가족·친구와 함께 오색찬란한 추억을 남겨 볼까.

가족·친구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체험해요



지혜은 작가와 함께하는 '스테인드글라스의 빛과 색, 균형과 조화의 미학'전이 2월부터 11월까지 1년간 경상남도 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등 20개 도서관을 순회한다. 대도시와 더불어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온 가족이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장이다. 순회 전시는 작품 전시와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학생대상으로 '하늘꿈고래 선개채(유리 장식품) 만들기'와 성인 대상인 '해바라기 선개채(유리 장식품) 만들기'를 준비 중이다. 단,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안전상의 문제로 UV본드로 유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개채(유리 장식품)가 햇빛의 기운을 받아 집안에 복을 부른다는 설이 있는 만큼 이번 전시에는 경남교육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마음이 담겼다.

지혜은 작가의 아름다운 작품이 한자리에



교회와 성당 내부를 아름답게 비추는 색깔 유리창, 스테인드글라스. 안료를 넣어 만든 색유리나 겹면에 색칠한 유리를 잘라 납틀이나 동테이프로 결합하여 만든 유리공예를 말한다. 지혜은 작가는 교회 건축의 상징으로 자리 하던 스테인드글라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스테인드글라스의 확장된 개념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동백 조영을 비롯해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tvN 드라마 <빈센조> 등에 협찬한 작품과 함께 선개채(유리 장식품), 캔들홀더, 화병 등 장식미술품도 볼 수 있다.

경남 구석진 곳까지 오색찬란하게 빛나는 '스테인드글라스의 빛과 색, 균형과 조화의 미학'전. 책으로 가득했던 도서관이 빛으로 가득 차는 특별한 광경을 목도해 보길!



<스테인드글라스의 빛과 색, 균형과 조화의 미학> 전시일정

기관명	전시기간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2월 7일(화) ~ 2월 18일(토)
양산도서관	2월 21일(화) ~ 3월 4일(토)
함안도서관	3월 7일(화) ~ 3월 18일(토)
의령도서관	3월 21일(화) ~ 4월 1일(토)
진동도서관	4월 4일(화) ~ 4월 15일(토)
남지도서관	4월 18일(화) ~ 4월 29일(토)
사천도서관	5월 2일(화) ~ 5월 13일(토)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5월 16일(화) ~ 5월 26일(금)
산청도서관	5월 30일(화) ~ 6월 10일(토)
하동도서관	6월 13일(화) ~ 6월 24일(토)
고성도서관	6월 27일(화) ~ 7월 8일(토)
함양도서관	7월 11일(화) ~ 7월 22일(토)
거제도서관	7월 25일(화) ~ 8월 5일(토)
거창도서관	8월 8일(화) ~ 8월 19일(토)
밀양도서관	8월 22일(화) ~ 9월 2일(토)
창녕도서관	9월 12일(화) ~ 9월 23일(토)
마산도서관	9월 26일(화) ~ 10월 7일(토)
합천도서관	10월 10일(화) ~ 10월 21일(토)
남해도서관	10월 24일(화) ~ 11월 4일(토)
삼천포도서관	11월 7일(화) ~ 11월 18일(토)

* 기관 사정에 따라 전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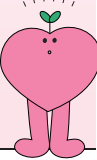
물오름달
2023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SUN

MON

TUE

창원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안내	체험 VR프로그램 10:00(평일), 14:00(주말) 책담 2층 책고리 3.2.(목), 3.4.(토), 3.8.(수), 3.9.(목), 3.15.(수), 3.16.(목), 3.18.(토), 3.22.(수), 3.23.(목), 3.29.(수), 3.30.(목) 체험 샌드크래프트 10:00, 16:00 책담 1층 누리홀 3.4.(토), 3.5.(일), 3.11.(토), 3.12.(일), 3.18.(토), 3.19.(일), 3.25.(토), 3.26.(일)	
5	6	7

- 상시 / 3층 갤러리 푸르미르 / '자연의 이미지 & 희망 에너지' 장미숙 작가 초대개인전(~3.29.(수)까지)

12

13

14

-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책담 하루 수업>

-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생태체험 (~3.31.(금)까지)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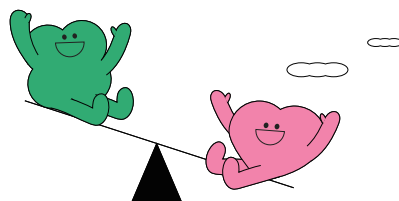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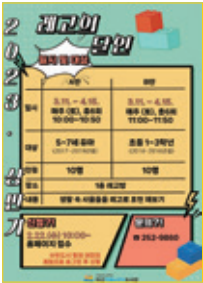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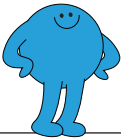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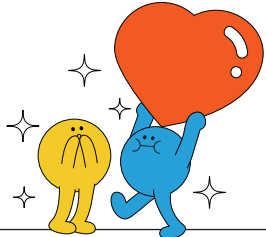
- 10:00~17:00 / 진주체험분원 홈페이지 / 4월 토요가족체험의 날 사전신청 기간 (~3.22.(수)까지)

26

27

28



WED	THU	FRI	SAT
		3	4 16:00~17:00 / 북카페 / 도서관으로 찾아온 미술사들 14:00 / 2층 구지봉실 / 책이랑 놀이랑 <종이컵 점프 토끼 만들기>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15:00 / 1층 세상을 봄 / 그림자 매직쇼 10:00 / 꿈담 4층 꿈1 / 원데이 클래스 <수제비누 만들기> 13:30 / 꿈담 4층 꿈1 / 원데이 클래스 <필러비즈 포켓몬 캐릭터만들기> 14: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책동산> 14:00 / 해담 3층 해담홀 / 체험 <다문화 프로그램 '친구랑 지구 한 바퀴' 1차시(체코)>
		10 14:00 / 지혜마루 / 오픈 마이크 : 현란 듀오 15:00 / 1층 동화방 / 체험 <책놀이 쿵쿵쿵>	11 16:00~17:00 / 북카페 / 인형극 <흑부리영감> 14:00 / 1층 로비 / 인문버스킹 I 14:00 / 지혜마루 / 토토로 어서옵SHOW 어린이뮤지컬 : 빨간모자와 늑대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15:00 / 1층 놀이꽃밭 / 대박이와 아기돼지 3형제 10:00 / 1층 레고방 / 체험 <레고의 달인> (~4.15.(토)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 15:00 / 2층 지혜마루 / 공연 <토선생, 못났소>
	16	17 15:00 / 1층 동화방 / 체험 <책놀이 쿵쿵쿵>	18 16:00~17:00 / 북카페 / 팝페라, 중창 하모니 11:00 / 별빛마루 / 별빛 인형극 : 제페토와 피노키오 15:00 / 1층 세상을봄 / 색소폰, 전자바이올린 연주 10:00 / 1층 동화방 / 체험 <책 읽어주세요> 15:00 / 2층 지혜마루 / 공연 <브라스, 브라스, 브라스> 10:00 / 꿈담 4층 꿈1 / 원데이 클래스 <소이캔들 만들기> 13:30 / 꿈담 4층 꿈1 / 원데이 클래스 <나무 새싹 키우기> 14:00 / 해담 3층 해담홀 / 체험 <다문화 프로그램 '친구랑 지구 한 바퀴' 2차시(미국)>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황금나팔을 울려라(골든브라스)>
22	23	24 14:00 / 1층 더채움방 / 체험 <레진 우정페어 열쇠고리 만들기> 15:00 / 1층 동화방 / 체험 <책놀이 쿵쿵쿵>	25 15:00~16:30 / 북카페 / 정글in 그림책작가 '유실화'와의 만남 14:00 / 3층 시청각실 / 참여놀이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 14:00 / 지혜마루 / 반가워 오케스트라 :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14:00 / 3층 무학전당 / 2023년 주목해야할 트렌드(노준영 작가) 11:00 / 2층 지혜마루 / 어린이 샌드아트 공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14:00 / 1층 구암홀 / 강연 <창작하는 습관(미강)> 16:00 / 2층 지혜마루 / 재능기부공연 / 오늘의 다양한 플루트 10:00 / 책담 1층 아이누리 꿈뜨락 / 공연 <동화인형극> 15:00 / 책담 해오름 / 공연 <무대 위의 인문학(양상블 공연)>
	29 11:00 / 지혜마루 / 수요 음악회 : 바흐	30	31 15:00 / 1층 동화방 / 체험 <책놀이 쿵쿵쿵>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문화감수성이 자라는 김해 여행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국립김해박물관



당신이 생각하는 '김해'는 어떤 모습인가? 대부분 2000년 가야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고요한 도시로 기억한다. 하지만 김해는 상상력이 넘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도시기도 하다. 김해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역사와 문화, 예술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즐겨보자. 점잖던 도서관은 가라! 뛰놀면서 책도 보고 공연도 즐기고, 강좌까지 듣는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도자와 건축을 함께 빚어낸 건물 자체부터 작품인 미술관, 마지막으로 가야의 숨결이 녹아있는 박물관까지 돌아본다.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김해'는 어떤 모습인가!





글 화유미 사진 백동민

02

- 01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바다동' 가운데 위치한 항해테이블
- 02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민성진 건축가의 미래 농촌 주거 형태를 주제로 한 작품 <메타 팜 유닛>
- 03 국립김해박물관. <금동관>



0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책의 나라 문화 놀이터

도서관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이하 김해지혜의바다)은 이름에 걸맞은 규모를 자랑한다. 온통 책으로 가득해 마치 책의 나라 같은 공간은 옛 주촌초등학교를 활용해 만들었다. 소장 도서만 무려 13만여 권, 연면적 3449m²에 달한다.

김해지혜의바다는 크게 지혜동과 바다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지혜동은 문화 강좌나 전시,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돼 있어 기존 도서관과 차별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의 특징을 살려 중소기업 제품 전시 및 홍보를 하는 '기업사랑방' 공간이 이색적이다. 우수한 지역 제품과 기업도 알 수 있고 청년들을 위한 기업 특강 등도 마련된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말 그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로 3D프린터를 이용해 창작물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01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바다동은 개방형 독서공간이다. 원래 체육관으로 사용하던 곳이라 엄청난 높이의 서가에 압도된다. 여기저기 가득 차 있는 책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책을 구경하게 돼 누구나 금방 책과 친해질 수 있다. 이곳이 더욱 매력적인 점으로 과학, 영어, 동화 등 책 주제에 따른 공간 분리를 들 수 있다. 과학책은 공룡 모양 서가에서 읽을 수 있고, 재미있는 등대 형상을 한 복층 다락 공간도 있다. 평소에는 책을 읽는 공간으로 운영하지만 공연과 강연이 열리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부터 음악회, 인문학 콘서트까지 즐길 수 있으니 김해지혜의바다 누리집의 행사 달력 확인은 필수다.

04.06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22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감각적 연대>

05 국립김해박물관. <따로 또 같이>

07 국립김해박물관. 관람객이 가야 토기 전시를 보고 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계 최초 건축도자 미술관

화려한 자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하 클레이아크 김해)은 2006년 문을 열었다. 클레이아크는 흙을 뜻하는 클레이(clay)와 건축을 뜻하는 아크(arch)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도자와 건축의 만남으로 도자문화가 발달한 김해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이다. 현재는 '돔하우스 건축 프로젝트 : 건축가 민성진, 기능과 감각의 레이어링' 전시가 진행 중인데

05





07



클레이아크 김해의 상징적인 실내 공간인 돔하우스와 갤러리 1에서 관람할 수 있다. 민성진 건축가가 설계한 미래 농촌 주거형태 작품과 이전에 작업했던 건축물 모형을 만나볼 수 있다. 클레이아크 김해는 이색적인 공간 답게 일반 미술관과 다른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는 외부 산책로다. 미술관의 등대 역할을 하는 높이 20m 클레이아크 타워와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선사하는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가 또 다른 감동을 준다. 전시만큼 체험을 중시한다는 점도 다른 점 중 하나다. 모자이크 타일이나 도자 작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김해박물관

가야 문화유산의 모든 것

우리나라 대표 가야사 특화 박물관인 국립김해박물관은 위치부터 남다르다. 가야의 건국 신화가 깃든 구지봉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역사적 장소에 박물관을 세운 만

큼 건축 디자인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동그런 울타리 안에 사각형으로 솟아오른 박물관 전시동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철판 색이 변하도록 설계해 철기문화를 상징한다. 덕분에 박물관도 하나의 유적처럼 구지봉과 잘 어우러진다.

상설 전시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선사문화로 시작한다. 국사책에서 보던 선사시대 습베찌르개부터 시대순으로 관람하면 된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지나면서 가야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야인의 삶과 문화를 볼 수 있는 문화재가 2600여 점, 이해를 돕는 미디어아트도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가야의 우수한 토기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불만하다. 여러 형태로 제작된 컵 모양 그릇과 잔 아랫부분에 흙구슬을 넣어 흔들면 소리가 나는 방울잔은 어떤 소리를 냈을지 상상력을 자극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주소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8
- 운영시간 평일 9시~21시, 주말 9시~18시
(매월 두번째 월·법정 공휴일 휴관)
- 누리집 <https://ghjlib.gne.go.kr/>
- 문의 055-330-9800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 주소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
- 운영시간 10시~18시
(매주 월·월 1일·설·추석 휴관)
- 누리집 <http://www.clayarch.org>
- 문의 055-340-7070

국립김해박물관

- 주소 김해시 가야의길 190
- 운영시간 상설전시 9시~18시
어린이박물관 10시~17시 50분
(매주 월·월 1일·설·추석 휴관)
- 누리집 <https://gimhae.museum.go.kr>
- 문의 055-320-6800

의정 9남매 다둥이 밴드

당신께 들려주고 싶은

우리의 행복한 멜로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밴드 무대가 펼쳐진 학교 강당, 쿵쿵따 드럼 소리 위에 뚱뚱뚱뚱 기타 소리가 덧입혀지고 건반 악기의 선율과 또랑또랑한 노랫소리가 뒤따른다. 박성용·이계정 씨와 9남매 다둥이의 다복한 하모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손잡고 다 함께 같이 가자는 노랫말처럼, 음악에 행복의 메시지를 실어 널리 퍼뜨리고 싶다는 다둥이 밴드의 음악을 잠시 감상해 볼까.



아빠의 꿈!

다시 시작되다

아빠 박성용(50) 씨와 엄마 이계정(48) 씨의 아홉 빛깔 보석, 예서(20), 예아(의령여고 2), 예훈(김해외고 1), 예한(의령중 2), 예권(의령 용덕초 6), 예명(의령 용덕초 5), 예령(의령 용덕초 3), 예후(5), 예울(3)이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악기를 다루고 여덟째와 막둥이는 무대에서 춤을 춘다. 플루트와 베이스, 일렉기타, 멜로디언과 키보드, 드럼까지 갖출 것은 다 갖춘 모양새고 미취학 아이들은 내킬 때에만 몸을 흔드는 기분파라서 그날그날 무대가 다르단다. 아무튼 모두 밴드다.

박성용(아빠)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배운 음악이 재밌어서 고등학교 생, 대학생 때 스쿨 밴드도 했고요. 음반 하나 내는 게 소원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전업 음악가로 산다는 게 어려우니까 직장인 밴드로 만족해야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용덕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실용악기를 하나씩 배운 덕분에 좋은 기회로 다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나이 50에 음반 내기라는 꿈을요.”



01 왼쪽부터 다섯째 예권, 넷째 예한, 둘째 예아

박예권(다섯째) “어릴 때 피아노를 쳤는데 초등학교 들어와서 일렉기타를 배웠어요. 아빠가 밴드 만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왜 하지? 했는데 하니까 재밌어요. 하기 잘한 것 같아요.”

밴드 결성 일등 공신

‘용덕초’

다둥이 가족은 2019년 밴드를 결성했다. 일등 공신은 단연 의령 용덕초등학교다. 전교생이 스무 명 남짓한 작은 학교인데 예술꽃씨앗학교에 선정되면서 ‘YD밴드’를 창단해 전교생이 악기 하나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다. 색소폰, 드럼, 가야금, 기타 등 배우고 싶은 걸 배운다. 유일한 드러머 예명이는 아빠의 권유로 드럼을 시작했다. “제일 쉬워보여서” 선택했다. 과연 학교 밴드부 출신 아빠의 아들다운 면모다.

드러머까지 갖춘 박성용호는 힘차게 닳을 올렸다. 다둥이 밴드가 무대에 설 때는 대개 5월이나 10월 무렵. 공연 일정이 잡히면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편이고 그 밖에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연습을 한다고. 용덕초 예



술꽃씨앗학교 성과공유회 무대에 오른 적도 있고 의령군 내는 물론이고 지난겨울엔 창원까지 다녀왔다.

이계정(엄마) “공연을 많이 다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불러주시면 한 번씩 가서 공연을 하고 와요. 작년 연말에 경남문인협회에서 불러주셔서 150명 앞에서 공연을 하고 왔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오늘 연습할 곡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다. ‘개똥벌레’,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 단골로 무대에 오르는 곡이다. 종종 ‘앞으로’, ‘둥글게 둥글게’를 선보이기도 한다. 두 곡은 의령 출신 동요 작곡가 이수인 선생의 작품이다. 의령에 귀촌해 의령 사람 다 된 박성용 씨의 의령 사랑이 엮보인다.

박성용(아빠) “저랑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 살았어요. 셋째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뭘까, 대도시에서 경쟁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자연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단 생각해서 큰마음 먹고 아내의 이모님이 계시는 의령으로 내려왔어요. 시골 인심이 좋아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이웃들과, 어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게 아이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정(엄마) “도시에 있는 학교는 돌봄도 순위가 있는데 작은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이들 돌봄을 해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적어서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잘나가는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아빠는 의령에서 학원을, 엄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이들 돌보는 문제는 부부의 돈독한 사랑과 작은 학교의 돌봄, 마을 어른들의 관심이 있어 순탄하게 흘러가는 중이다.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이곳 의령에서 낡아 보니 예쁘고, 또 예뻐서 낡고 그렇게 아홉째까지 생겼다. 엄마는 열째까지도 생각이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행복 열매가 몇 배로 주렁주렁 열려서다. 한창 사춘기를 겪을 나이인데도 아이들 얼굴엔 쑥스러움만 있을 뿐, 어디 뻘죽하거나 토라진 기색이 없다.

이계정(엄마) “사춘기라고 크게 반항이라는 것도 없고 동생들과 잘 놀아요. 형제자매는 가장 좋은 친구니까. 저희는 아이들끼리 싸울 때도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또 아이들이 부르면 중재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안 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웃어요.”



박에서(첫째) “어렸을 땐 둘째 예아랑 셋째 예훈이가 연년생이라 좀 자주 싸우긴 했는데 알아서 잘 풀더라고요. 싸운다기보다는 다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우리들

쑥스러워하던 아이들은 어디 가고 무대에는 슈퍼밴드만 남았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평소처럼 무대에서도 서로의 소리를 존중한다. 하모니의 중간에는 예명이의 드럼 솔로, 예권이의 기타 솔로. 피날레는 예령이와 아빠의 합창. 무대 인사를 끝으로 악기 소리는 멎었지만 다둥이 가족의 웃음소리는 계속된다.

박예훈(셋째) “올해부터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을 볼 수 있어요. 조금 허전할 것 같기는 해요.”

박예명(여섯째) “누나랑 형이랑 있어서 좋은 점? 없는 데?(웃음) 사실 형들이 있어서 좋아요.”

애니메이터, 변호사, 경제학자, 화가 등등 하고 싶은 일은 저마다 달라도 음악을 즐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더없이 행복하다는 다둥이 가족. 그들은 말한다. 우리의 행복을 음악에 담아 당신에게도 들려주고 싶다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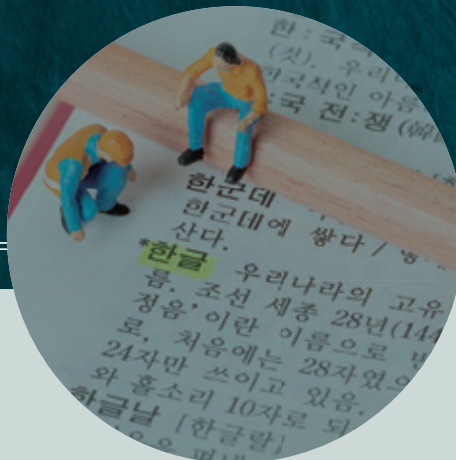
국어 바르게 쓰기

<우리말 돋보기> 첫 번째

국 어 사 전

활 용 법

1990년대만 해도 집마다 국어사전, 영어사전이 한두 권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궁금한 단어를 검색하면 바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세상이지요. 이번 호에서는 우리글,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첫걸음이 돼줄 나침반 같은 존재인 국어사전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 자료 <국어사전 활용 안내서>
국립국어원(2022)

한글의 뜻이 궁금할 때 대부분 사람은 특정 사전이 아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럼 포털 사이트에 있는 국어사전은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만드는 국가 기관(국립국어원), 대학 연구기관(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등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사전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이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국가에서 최초로 직접 편찬한 국어사전으로 2002년 웹 사전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사전을 편찬·감수하는 반면 우리말샘은 국민이 사전 편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 접속합니다. 이어 검색 칸에 자신이 궁금해하는 단어(표제어)를 입력하고 ‘찾기’를 누르면 뜻풀이는 물론 발음, 활용, 원어, 품사, 문법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學校生活)

발음 [학교생활]

명사 「교육」 학생으로서 학교에 학적을 두고 지내는 생활.

표제어 중 일부분만을 기억할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의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호 별표(*), 물음표(?)를 문자와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고 검색하면 ‘사과’로 끝나는 모든 표제어를 찾아 줍니다. 단 ‘*’는 ‘임의의 여러 음절’을 의미하며 ‘?’는 ‘임의의 한 음절’을 나타냅니다.

*사과 찾기 결과(총 32개)

감-사과(甘沙菓) 명사 잘게 만든 강정에 아무 가루도 묻히지 아니하고 빨간 물, 파란 물, 노란 물을 탄 조청을 따로따로 발라 놓은 과자. ≒ 시사과

계-사과(戒四科) 명사 「불교」 불교의 계(戒)를 넷으로 나눈 것. 이에는 계법(戒法), 계상(戒相), 계체(戒體), 계행(戒行)이 있다. ≒ 계사별.

늦-사과(늦沙果) 명사 제철보다 늦게 익는 사과.

한글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2항에 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

거나 쓰다 보면 붙여 써야 하는지, 띄어 써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붙임표(-), 삿갓표(^)와 같은 표제어에 사용된 기호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붙임표(-)가 표제어의 앞이나 뒤에 나오면 반드시 붙여 써야 합니다. 삿갓표(^)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초등-학생(初等學生)

발음 [초등학생]

명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초등^교육(初等敎育)

「교육」 가장 초보적이며 기본적인 교육.

초등학교 교육 따위이다.

퀴즈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해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다음 중 하나의 단어가 아닌 것은?

① 대한민국 ② 언어생활 ③ 국어과 ④ 새기분 ⑤ 우리나라

2.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바르지 않은 것은?

① 집채만 한 파도가 갯바위를 삼킬 듯 높게 치솟았다.
② 동생도 형만큼 똑똑하다.
③ 창원에 온 지 십여 년이 됐다.
④ 허튼 짓하지 말고 하던 일에 집중해라.
⑤ 책상, 걸상 등이 있다.

3. ‘-을’과 ‘-를’의 쓰임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① 합격을 ② 할인을 ③ 입학률 ④ 투표율 ⑤ 출석률

올바른 순서로 고르면 정답은 ② ⑤ ③ ④ ① 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웹툰

당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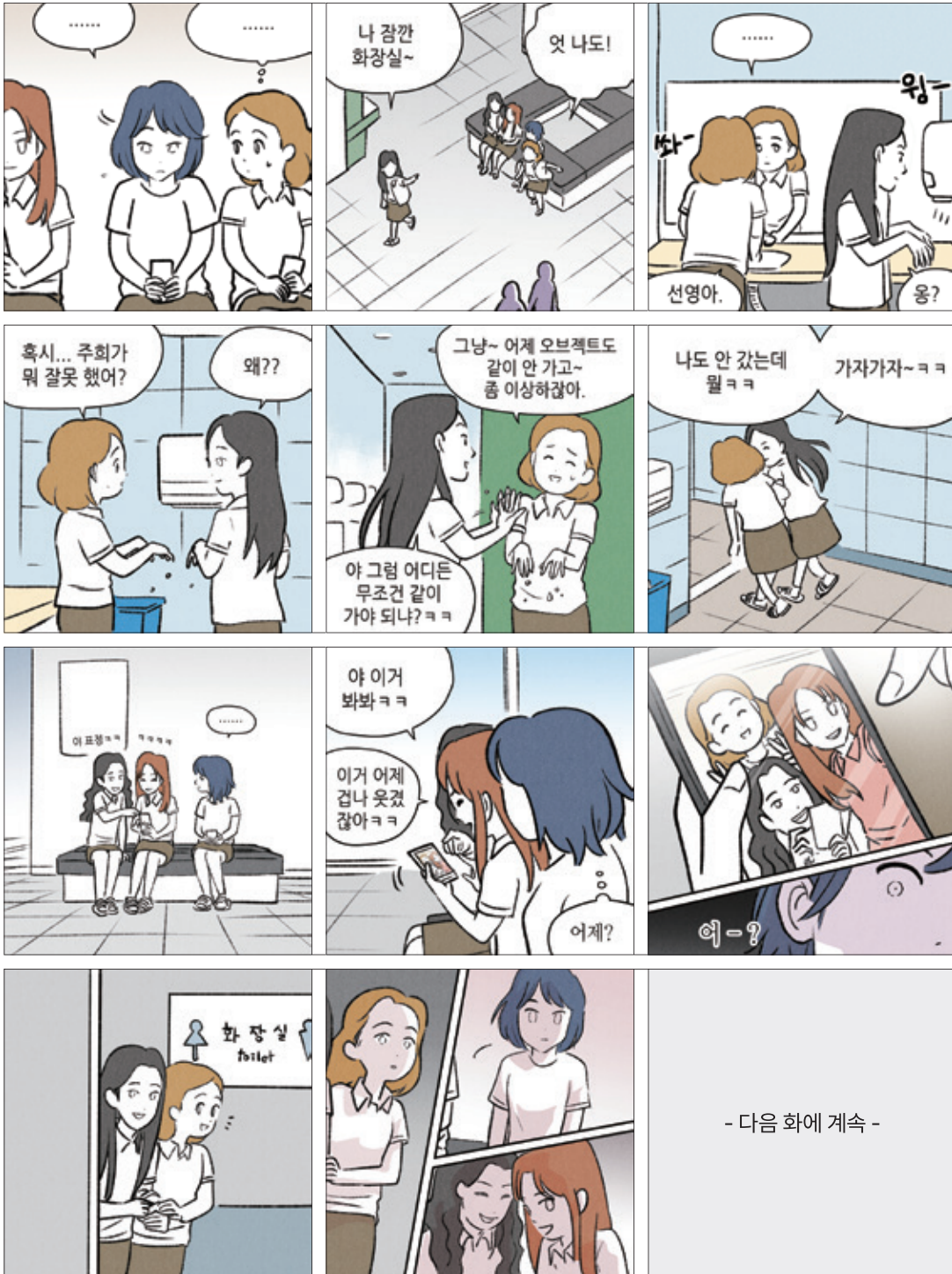
모르는

사이에

2화

웹툰작가 앵무





2024학년도 대입전형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3월호는 대입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위주전형의 특징과 지원전략, 대학의 전형 종류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목해주세요!

대입은 학생 모집 시기별로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구분합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전형, 논술전형, 실기·실적위주전형으로, 정시모집은 수능위주전형과 실기·실적위주전형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 중 학생부교과전형은 44.8%, 학생부종합전형은 23%, 수능위주전형은 21%를 차지합니다.



✓ 학생부 교과전형 특징 및 지원 전략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모두 교과 성적이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대부분 대학이 교과 성적 중 등급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며, 교과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주요 전형 요소입니다. 수도권은 많은 대학이 추천자전형으로, 지역대학은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교과 성적 이외 서류평가, 면접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및 지원 전략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주요 전형 요소로 하며,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됩니다. 교과 성적 중 원점수, 표준편차, 평균, 수강자 수, 등급, 학기별 성적 추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다양한 영역을 반영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는 블라인드(정보 가림)로 실시해 주어진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에게 유리하므로 수업을 중심으로 주어진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호도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과 성적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대학	전형명	전형방법
경상국립대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경희대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전형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
고려대	학생부교과	학교추천
	학생부종합	일반전형-학업우수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계열적합형
부산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전형, 지역인재전형
서강대	학생부종합	일반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서울대	학생부종합	지역균형선발전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서울시립대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전형
	학생부종합I	면접형
	학생부종합II	서류형(신설)
성균관대	학생부종합	계열모집
	학생부종합	학과모집
	학생부종합	과학인재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중앙대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
	학생부종합	CAU융합형인재
	학생부종합	CAU탐구형인재
창원대	학생부교과	학업성적우수자전형
	학생부종합	계열적합인재전형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한국외대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전형
	학생부종합	면접형
	학생부종합	서류형
한양대	학생부교과	지역균형발전
	학생부종합	일반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경상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지난해 2등급으로 선정됐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는 경남교육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노력을 살펴볼까요?



1

종합청렴도 평가 점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경상남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며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민원인)과 내부 직원 설문조사 중심의 '청렴체감도 측정'(60%)과 각 기관의 반부패체계 구축 의지와 실적 등을 반영하는 '청렴노력도 평가'(40%),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패사건 연루 여부를 확인해 감점하는 '부패실태 평가'(10%+α) 3가지를 합산해 수치화한 겁니다.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직자 총 22만 500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겨졌습니다.

2

청렴한 경남교육을 위한 노력



365일

경상남도교육청은 전년도에도 2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22년 3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청렴 추진 기반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점검·보완 △부패 행위 근절 신고자 보호 강화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23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청렴정책관리자 회의, 청렴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비롯해 청렴 문화공연, 자체 청렴도 조사,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부패방지 규정 정비, 지침서·사례집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와 관련이 깊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업체, 방과 후 학교·학교급식·운동부 관계자와 함께 청렴 토크 및 청렴 컨설팅 등으로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2023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 미리보기

4대
추진방향

- ▶ 청렴 추진 리더십·기반 강화
- ▶ 청렴공동체 문화 확산
- ▶ 부패취약 분야 점검·외부청렴도 제고
-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구축·운영

올해인 2023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미리 볼까요?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 추진 리더십·기반 강화 △청렴공동체 문화 확산 △부패취약 분야 점검·외부청렴도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구축·운영의 4대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본과제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구분해 도교육청 18개 과제, 교육지원청 12개 과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공동과제 9건을 더해 촘촘한 청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효율적인 추진으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남 교육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청렴 정책! 올해도 경상남도교육청이 만들어 갑니다!

경남교육 NEWS



경상남도교육청
“방역지침 달라져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 따라
일선 학교 점검... 방역 인력·물품 지원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가 완화돼 경상남도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등교하는 모든 학생·교직원에게 권고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록 대상을 새 학기부터 유증상자로 축소했다. 또, 체온 측정을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하는 자율로 바꿨다. 학생·학부모·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동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그 밖에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을 경우에 교육 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학기(95일)에 투입한 방역 활동 지원 인력은 1576개교에 5189명이다. 올해도 지난해에 준하는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진주역세권 초·중·고등학교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6년 3월 38개 학급 규모로 개교...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해소 기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 내 (가칭)신진주역세권 초·중·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가칭)신진주역세권 초·중·고등학교는 진주시 가좌동 1954 일원에 총 사업비 442억 원을 들여 1만 4405㎡ 면적에 오는 2026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규모는 초등학교 25개 학급(특수 1개 학급 포함) 학생 수 506명, 중학교 13개 학급(특수 1개 학급 포함) 학생 수 313명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 내에 올해 3월 개교한 은하수초등학교의 학생 수 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소 규모 금곡중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이전 재배치 현안과 더불어 초·중학교 단독 신설 규모로는 부족한 학급 수를 보완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추진하게 됐다.

초·중·고등학교 신설 과정에서 학교급별 단독 신설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관계 조정, 금곡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학부모 설득, 금곡중학교 터 활용 방안 마련 등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경남교육 NEWS



거점유치원 운영비 인상·안심유치원 확대

경상남도교육청, 2023년 유아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발표

경상남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거점유치원 운영비를 1개원당 최고 1000만 원 내외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 '아이좋아 안심유치원'을 208개원으로 늘려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수립한 '2023 경남 유아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른 거점유치원 운영비 인상은 지난해 원당 800만 원보다 늘려 편성한 것이다. 교육과정 거점유치원은 창의적·자율적 교육과정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 우수사례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 수업 콘텐츠에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아이좋아 안심유치원'은 지난해 202개원에 이어 올해는 208개원을 지정 운영하며, 내년까지 도내 전 유치원을 안심유치원으로 지정한다. 안심유치원으로 지정되면 원당 3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심유치원은 시설, 건강, 급식, 안전 교육 분야별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든다. 유치원 자체 점검을 통해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 요소를 강화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은 권역별로 전문가를 지원한다.



양산 어곡초 신혜오, 동계체전 4관왕 달성

슈퍼대회전·대회전·회전·복합... 경남, 8년 만에 대회 4관왕 배출 경사

양산 어곡초등학교 신혜오(6학년)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알파인 스키에서 4관왕에 올랐다. 신혜오는 지난 17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여자 13세 이하부 스키 회전과 복합 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회전 종목에서 1위에 오른 신혜오는 슈퍼 대회전과 회전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복합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5일과 16일에 열린 슈퍼대회전과 대회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신혜오는 대회 4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당초 경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신혜오에게 은메달 2개 정도를 기대했으나 신혜오는 대회 전 "4관왕을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당당히 밝혔는데 자신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켰다.

신혜오의 4관왕은 이번 대회 알파인 스키에서 유일하며 대회 전체종목 참가 선수를 통틀어도 4명에 불과한 빼어난 기록이다. 경남의 경우 2015년 남자 초등부에서 처음으로 4관왕을 차지한 후 8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다.

교육위원에게 듣는다

손덕상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해8,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으로서 의원님께서 바라는 경남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 혁신, 학교혁신을 통한 미래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 학교를 맘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맘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끼를 발산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더 늘어나야 하며, 그 공간에서 더욱더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 도서관의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죠.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부터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경남의 경우 2018년 합계출산율이 1.12명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0.86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출산과 육아로 인한 비용과 책임은 개인이 지면서 그로 인한 편익과 혜택은 사회가 받는 구조로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개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사회가 덜어 줘야만 하는데, 공익적 가치를 최고로 우선하는 행정기관 등에서부터 관련 정책을 파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법정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하 계급관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 관리자 들을 의식하지 않고 어느 공무원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으며 어느 공무원이 가산점

준다고 3명의 자녀를 출산하겠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육아휴직 승진 우대 및 육아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라는 점이 분명히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시간 대상자를 현재 5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듯이, 이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현재 대상자가 신청하여 재량적으로 쓰는 육아시간의 강제적 사용 등도 고려해서 이 제도의 효용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출산축하금 등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탈피해,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의 저리 장기 금융 정책이나 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교육비 통합바우처 정책 등을 통해 현재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육아비용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면서 미래 세대를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도민들께서 필요로 한 곳이면 언제든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신뢰성 있는 민의 전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기본 좋은 봉사자, 젊은 일꾼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경남도의회를
기대하는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상황의 청소년, 노인 및 소외계층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경남과 경남교육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소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개원 예정 시설과 일선 교육기관 운영 현황 확인

- 미래교육원 신축 공사 현장 방문 및 추진 상황 점검
- 지난 10월 신설된 진주행복교육지구 운영 현황 확인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월 22일 미래교육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예술교육원 해봄, 진주행복교육지구 등 4개 교육기관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교육위는 2월 22일 오전, 올해 7월 개원 예정을 앞둔 미래교육원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시공 중인 시설 시찰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업무보고 청취 등으로 정상적인 개원 여부를 점검했으며 오후에는 학생안전체험교육원과 예술교육원 해봄을 방문하여 각종 재난과 일상 속 위기상황을 미리 체험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체험중심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2022년 10월 신설된 진주행복교육지구에 방문하여 마을교사 구성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 신설된 시설의 운영 실태와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 ‘홀로서기’ 보다 ‘함께서기’

보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등지를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사회진출을 위해 ‘홀로서기’를 한다는 표현이 맞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그들의 홀로서기는 성공할 수 있다.
경남도가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적응, 힘찬 비상과 건강한 자립을 응원한다.



지원정책



자립 정착금 인상

800만 원 → 1000만 원

자립 수당 인상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 보호 종료 후 5년간



재정관리 역량 강화

재정관리 컨설팅 교육
(지원금 낭비, 사기·범죄 예방)

주거지원 확대

LH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최대 4년간 500만 원)

월세 지원(월 15만 원 이내)



대학 진학 지원

대학생활안정자금(200만 원)
경상남도장학회(1인당 100만 원)

취업 지원

직업상담사 배치
취업역량프로그램 확대



통합서비스 대상 확대

85명 → 125명

정서적 지지체계 확대

자조모임 지원
자립멘토단 운영

주요사업

자립 지원 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자립 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 125명 선정, 맞춤형 자립 지원과 사후관리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 자립준비교육 지원
- 자립체험관 제공



-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716명
- 사후관리(모니터링/자립수준평가)

사례관리 125명



입주 자립준비 청년 25명

자립주거시설 지원(1인 1실 제공)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자립지원서비스)

자립준비청년 100명

자립통합지원서비스(사례관리)
자립교육, 정보연계 등



경남도,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확대

경남도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경남 실현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과 두터운 사후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영역별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과 진로 캠프·자립 교육·자조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통하여 주거생활·재정관리·정서 관리·진로 취업 등 자립생활의 주요 영역에 대한 직접 사례관리 및 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상,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

자립 프로그램



자립생활관 내부



자립 토크 콘서트

- 자립체험관 보호 아동(만 15세 이상 자립 예정자) 단기(2박·4박), 장기(보름·한 달·한 학기) 체험
- 자립생활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5년 미만) 1인 1실 독립공간(최대 2년) 월세 무료(관리비 개인 부담)
- 자립역량강화 자립정착금 의무교육, 진로(취업) 캠프, 토크 콘서트, 자립 전문가 멘토링, 심리 정서 지원, 자조 모임 지원 등

사례 1. 자립 준비 A청년(남·24)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A청년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취업 준비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담당자는 관계자를 연계해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취업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A청년은 지역아동센터 7개월 근무, 아동양육시설에 취업해 8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담당자는 A청년이 사회복지기관 정규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사례 2. 자립 준비 B청년(여·23)

B청년은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며 대학교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생필품 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정장,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을 받았다. 이후 목표했던 대학 졸업 전 취업을 하였으며, 현재 회사에 적응하며 잘 다니고 있다.

경상남도 아동청소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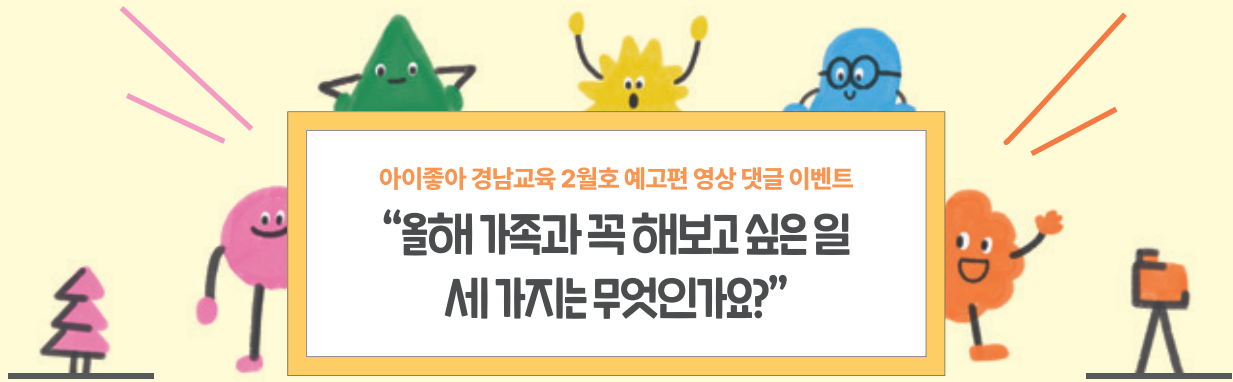
문의 ☎ 055)211-4273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치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현대센앤빌 C동 209호

문의 ☎ 055)265-7942





가족사진 찍기, 아버지와 등산하기, 가족여행 가보기 최영준 님

저희 가족은 살면서 가족사진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버지 모시고 가족사진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 키우다보니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행 가기, 등산 하기,
첫 해외 여행하기 김미나 님

바쁘게 살다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서 속상합니다.
올해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면 좋겠네요.

해외 여행 가기, 같은 취미 가져보기,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하기 강혜선 님

고집이 강한 엄마를 만나 아이들을 멀어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같이 함께 하면서
아이들 생각을 알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어요.



여행 가기, 놀이공원 가기, 배 낚시하기 권민석 님



우리 가족은 경상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등등
국내 여행지 곳곳을 놀러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렸을 땐 부모님이 바빠셔서 같이 놀이공원에
가보지 못했지만, 함께 놀이 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회를 엄청 좋아하는데 같이 배 낚시를 가서 싱싱한 회도 먹어보고 싶네요.

가족 여행 가기, 자전거 타기, 아내와 데이트 이정훈 님

휴가가 없는 아빠를 만나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 본 경험이 없는 우리 아이들.
올해는 꼭 가족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7살 딸, 11살 딸아이가 있는데
아직 자전거를 못 타요. 함께 자전거를 신나게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아내와 데이트하기. 큰 아이가 11살이 되도록 둘이서 데이트를 할 시간이 없었네요.
올해는 함께 데이트 하자!



본 이벤트는 <아이좋아> 소식지 2월호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댓글 이벤트입니다.
매달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3월호 이벤트는 2월 말 경남교육청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공개되는 예고편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월호
예고편 영상 보기

2023년 3월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3월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 ____ 3월호 표지의 주인공인 차도이 학생이 선수로 활동하는 스포츠 종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① 봅슬레이 ② 쇼트트랙 ③ 피겨스케이팅 ④ 리본체조

2 ____ 밀양 밀주초등학교 공간혁신 사례 중 하나로 270m² 크기 1만 6500권의 도서가 있는 북카페·도서관·놀이터·중앙현관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① 키자람터 ② 꿈자람터 ③ 꿈꾸는터 ④ 생태동굴

3 ____ 자유당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4 ____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단답형)

2월 독자퀴즈 정답과 정답자

● 정답 1. ③ 렛츠덕 / 2. ③ 가운길 / 3. 람사르 협약 / 4. 학생안전체험교육원
● 정답자 사천 경남자영고 이화경, 창원 용마초 김도윤, 진주 금성초 서준우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매월 제시되는 독자퀴즈의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3년 3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전자우편(gne8@hanmail.net)
● 문의 055-278-1784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또는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자유 형식)를 아래로 보내주세요.

● 제출 기한 2023년 3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전자우편 gne8@hanmail.net
● 전화번호 055-278-1784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아이좋아
경남교육 웹진



2023

지속가능한 미래! 삶과 연계한 수업!
자립과 공존의 경남교육

전국 시도교육청 유일!
종합청렴도
1등급